

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

2021. 4. 3.

지난 3월 9일 파이낸셜타임즈(Financial Times)가 보도한 쿠팡 관련 기사는 사실들을 왜곡하고 있어 쿠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여러 차례 수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, 파이낸셜타임즈는 당사의 정정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.

쿠팡은 지난 10년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이 한 건도 없었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도 한 건임에도 파이낸셜타임즈 보도를 여과 없이 인용한 일부 보도는 여전히 쿠팡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과로로 사망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- **창립 이후 10년간 쿠팡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.** 같은 기간 택배물류업계의 연평균 업무상 사고 사망은 80건입니다. [아래 표 참조]
- 창립 이후 10년간 쿠팡에서 **업무상 질병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는 1건**입니다. 택배물류업계의 업무상 재해 사망은 매년 약 120~150건 발생하였습니다. [아래 표 참조]
-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직업환경의학 전문가의 기고에서도 “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자의 수는 3만 5천 명이나 되며, 2020년 말 기준 쿠팡의 직원수 5만1000명 중 3명이 심혈관계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성별 연령별 구성을 고려하더라도 **쿠팡에서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일반 국민 대비 낮다**”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[기고문 “택배물류업계 과로사 논란을 지켜보며 ” 참고](#)>

쿠팡은 모든 직원의 건강과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,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쿠팡은 대한민국 택배물류업계에 새로운 근로환경을 선도해 왔습니다. 주 6일 근무가 표준인 택배물류업계에서 쿠팡은 최초이자 유일하게 배송 기사에게 100% 직고용, 주 5일 52시간 근무, 4400명의 분류전담 인력 운영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업계 내 절대다수의 배송 기사는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[아래 표 참조] 쿠팡은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함으로써 계속해서 택배물류업계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.

업무상 사고 사망 건수 (2011-2020)

연도	쿠팡	업계
2011년	0	108
2012년	0	109
2013년	0	86
2014년	0	74
2015년	0	88
2016년	0	82
2017년	0	71
2018년	0	80
2019년	0	59
2020년	0	50
합계	0	807

※ 택배물류업계는 운수창고통신업 기준

※ 택배물류업계 2020년 업무상 사고 사망 건수는 2020년 1월~9월 기준

업무상 재해 사망 건수 (2011-2020)

연도	쿠팡	업계
2011년	0	134
2012년	0	140
2013년	0	135
2014년	0	119
2015년	0	131
2016년	0	129
2017년	0	121
2018년	0	157
2019년	0	153
2020년	1	116
합계	1	1335

※ 택배물류업계는 운수창고통신업 기준

※ 택배물류업계 2020년 업무상 재해 사망 건수는 2020년 1월~9월 기준

쿠팡이 선도해온 택배물류업계 새로운 기준

분류	쿠팡친구 (쿠팡 배송기사)	대형 택배사
고용형태	직고용	외주
근로시간	주 5일, 52시간 미만	주 6일, 71시간 초과
분류작업	4,400명 분류전담인력 배치	일부 배치 중
연차휴가	15일 이상	없음
휴게시간	보장	없음
산재 포함 4대 보험	100% 제공/보장	미제공

쿠팡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회사의 핵심가치이자 첫 번째 경영원칙으로 삼아 더욱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.

[English Post Link](#)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